



가슴 짝~해지는 그 이름 '아버지'

극장가 '아버지 열풍'

돌아 서면 그림고 더욱 슬퍼지는 사람, 아버지. 다시 화두는 아버지다. 극장가에 '아버지 열풍'이 불고 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가후엔 '아버지' '가시고기' 등 부성애를 내세운 소설이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아버지 코드'가 다시 사랑받고 있다. 아버지 세대의 눈물과 희망을 담은 영화 '국제시장'(유재균 감독) 등 '아버지 영화'가 잇따라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지난 17일 개봉한 '국제시장'은 개봉 둘째 날부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호빗-다섯 군대 전투'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이어 개봉 12일 만인 지난 28일 400만 관객을 훌쩍 넘어섰다. 지금까지의 흥행속도만 비교하면 2012년 1000만 관객을 모은 '광해, 왕이 된 남자'와 비슷하다.

'국제시장'은 6·25전쟁 당시의 흥남 철수에서부터 파독(派獨) 광부와 간호사, 베트남 참전, 이산 가족 찾기 등 우리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 속에서

굴곡의 현대사 눈물 담은 '국제시장' 개봉 12일만에 400만 돌파
인류의 식량난 극복 위해 우주로 떠나는 '인터스텔라' 1000만 관객
전쟁터서 아들 시신 찾아 헤매는 父情 '워터 디바이너' 다음달 개봉

가족을 지킨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국전쟁 피란길에 아버지와 헤어지면서 때 이르게 가장 노릇을 하게 된 남자 덕수(황정민)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덕수는 해방대에 합격하고도 파독 광부의 길을 걷게 된다. 독일 탄광에서 감자를 먹으며 괜찮다고 웃어보이는 덕수의 얼굴은 한 시대를 묵묵히 견뎌낸 이 땅 아버지들의 모습을 대변해준다.

영화 속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나는 그게 생각한다. 힘든 세월이 태어나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

행이라고" 등의 대사는 '아버지의 마음'이 묻어나 있다.

누적 관객 1000만명을 돌파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터스텔라'에도 진한 부정을 담겨 있다. 식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주로 탐험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이 영화에서 '아버지 코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인류라는 더 큰 가족을 위해 희망을 찾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인터스텔라에 등장하는 "부모가 되면 꼭 해야 할 게 생겨 아이가 겁먹지 않게 지켜줘야 하지" "내 가족뿐 아니라 수백만의 가족을 생각한다"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하죠" 등의 대사는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애뜻한 마음이 녹아 있다.

내년 1월 개봉을 앞둔 영화 '워터 디바이너' 또한 아버지에 대한 헌사다. 러셀 크로우가 감독과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8만 명의 전사자를 남긴 참혹했던 전투현장에서 아들을 찾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갈리폴리 전투로 세 아들을 모두 잃은 코너(러셀 크로우)는 아내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아들들의 시신을 찾아 호주에서 1만 4000km 떨어진 낯선 땅 타기로 향한다. 목숨을 내건 여정은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노부부의 사랑과 이별을 담아 사랑을 받은 다큐멘터리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도 '아버지 코드'는 중요한 장치다. 이 영화는 28일 현재 누적 관객수 355만을 기록하면서 역대 다양성 영화 흥행 1위를 기록했다. 묵묵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에 자식들은 울음을 터뜨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월간 **연극** 1월호



연중 기획 '사람이 브랜드다' '남도의 장인들' 나전철장 김기복씨

사람이 브랜드인 시대다. 문화예술인을 브랜드 화해 도시와 지역을 먹여살리는 콘텐츠로 작용한 사례가 늘고 있다.

광주일보 자체 월간 '연극'은 2015년 한 해 연중 기획물 '사람이 브랜드다'를 통해 인물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다뤄볼 계획이다. 프로그래머에서는 문화정보와 시대 인물 마케팅으로 성공한 대구, 통영, 미국사례와 남도의 현주소, 마케팅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30일 발간된 1월호에는 '사람이 브랜드다'를 비롯해 기획 '아시아문화전당, 이젠 시너지다'를 통해 문화전당을 축으로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생방안을 찾아본다.

예향초대석에서는 한국 근대미술의 살아있는 역사 김경자(92) 화백을 만났다. 목포에서 창작하고 있는 김 화백은 호남 최초 여성화가이기도 하다. 그를 만나 창작세계와 인생이야기를 들었다.

'마주보는 책과 삶'이 만난 주인공은 대중과 호흡하는 심리학자 곽금주씨.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심리학의 렌즈로 해석하는 곽 교수 만나 영향을 받았던 책 이야기를 들어본다.

1월호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남도의 장인들' 첫 번째 주인공은 60여년간 나전철장을 만들어오고 있는 나전철장 김기복씨다. 경남 통영 출신 김씨는 열여덟의 나이에 광주로 온 후 출근한 길만을 걸어 오고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장인이었다.

이외에도 '신남도문화여지도'는 올미년 첫 기행지로 '천사의 섬' 신안으로 떠나고, 지난해 '우리땅 속살 여행'을 연재했던 여행칼럼니스트 노중훈씨는 새해부터 세계 문화도시 기행으로 새롭게 독자들과 찾아간다.

'예향 갤러리'는 '화가의 작업실'로 코너를 개편해 작가들의 작업현장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져볼 예정이다. 새롭게 시작되는 연재물 '정윤수의 스포츠 인사이트'와 '유명인의 패션 인 오페라'도 읽을거리다.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음악으로 2014년과 감미로운 이별 30일 광주시향·31일 전남대 송년음악회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음악회가 잇따라 열린다. 전남대(총장 지병문)는 31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2014 전남대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는 전남대 교수와 학생·동문이 출연, 국악과 클래식 음악을 선사한다.

1부에서는 전남대 국악과 동문·강사·학생 70여 명이 연주하는 '종묘제례악'(집박 안희봉 교수)을 시작으로 피리독주 '상림산'(김정집·국악과 강사), 가야금병창(황승욱 외 35명), 판국·남도민요 '강강술래' 등 공연이 펼쳐진다.

2부에서는 황성규 교수가 지휘하는 전남대 오케스트라의 연주 아래 서곡 '빛의 노래'(한경진),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소프라노 손숙경), 푸치니의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테너 윤병길),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등을 부른다. 또 피아니스트 문현욱 교수와 테너 김원태, 소프라노 표현진, 전남대 합창단이 베토벤의 '코랄 환타지'를 들려준다. 문의 062-530-1127, 3050, 3030.

광주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이현세)도 송년

음악회를 준비했다. 3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공연에는 세계적인 바리톤 고성현(한양대 교수)이 함께한다.

주제의 '경기병 서곡'으로 문을 여는 이번 공연에는 테너 나승서(추계예술대 교수), 소프라노 강혜정(계명대 교수)도 함께 한다.

레퍼토리는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방금 들린 그 목소리', '사랑의 묘약' 중 '내말 좀 들어봐요 아디나', '라 보엠' 중 '그대의 찬송', 비제의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등이다. 또 김효근 곡



고성현 교수 문현욱 교수

'눈', 조두남 곡 '벚꽃노래', 김연준 곡 '청산에 살리라' 등 아름다운 가곡도 만날 수 있다. 마지막 곡은 'Time to say goodbye'다. 티켓 가격 3만원~1만원. 문의 062-524-5086. /김미연기자 mekim@

다가오는 2015년 새해에도, 고객님의 한분 한분을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모시는 **금수장 호텔 아리랑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www.geumsoojang.com

신년 메뉴 **떡국**개시 정성을 가득담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0가지 위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너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맞춤형 출장도시락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1·2층 이태리가구 3층 통원목가구 4층 모던가구

**이태리가구
혼수가구
특가전**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 1899-0240